

1. 예수님을 따를 때 무엇을 짊어지고 따라야 하나요?

- ① 옷가지                      ② 여행 가방
- ③ 돈 가방                    ④ 십자가

2. 다음 중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정답 2개)

- ①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이 더 소중한 사람
- ②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
- ③ 자기 소유를 다 버리는 사람
- ④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떠넘기는 사람

3. 다음 중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 초롱	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지만, 좋아하는 라면을 포기할 수 없어서 들고 다녀.
② 수빈	난 모든 소유를 버렸지만, 기운이 없어서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해
③ 선경	난 모든 소유를 버렸고, 십자가를 지지만, 달리기가 빨라서 예수님을 앞서나가곤 해.
④ 진희	난 모든 소유를 버렸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며, 내 목숨도 미워 할 수 있어.

정답은 9월 13일(금) 까지 우편(주보하단참조)으로 보내주세요.

배론성당 염제한 스테파노 신부님



주일학교 친구들~~  
여름방학은 기쁘고 즐겁게 보냈나요?  
그동안 주일학교도 방학을 한 곳도 많았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나게 방학을 보내는 동안,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께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방학이 끝나고 난 뒤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죠. 잠도 아침 늦게까지 더 자고 싶고, 친구들과도  
더 놀고 싶기도 할 것이예요.

방학은 왜 그렇게 늘 짧게만 느껴지는지 원망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방학일 수만은 없죠.  
시작이 있으면 언제나 끝이 있어야 하고,  
또 끝이 있기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다짐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도 주일학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각자 다짐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더욱 기쁘게 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예요. 그래서 아쉬움이 남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들로 여겨주실 것이예요.

새로운 주일학교 학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봉헌하는 기쁜 주일이 되기를 신부님도 기도할게요.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연중 제 23주일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 27)




성당

학년

이름


서명

1독서 **여행**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9,13-18

13 어떠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14 죽어야 할 인간의 생각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속마음은 변덕스럽습니다. 15 썩어 없어질 육신이 영혼을 무겁게 하고 흠으로 된 이 천막이 시름겨운 정신을 짓누릅니다. 16 저희는 세상 것도 거의 짐작하지 못하고 손에 닿는 것조차 거의 찾아내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밝혀낸 자 어디 있겠습니까? 17 당신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당신의 거룩한 영을 보내지 않으시면 누가 당신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18 그러나 그렇게 해 주셨기에 세상 사람들의 길이 올바르게 되고 사람들이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으며 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 **여행**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12,18-19.22-24

사랑하는 그대여, 9 나 바오로는 늙은이인 데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수인까지 된 몸입니다. 10 이러한 내가 옥중에서 얻은 내 아들 오네시모스의 일로 그대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12 나는 내 심장과 같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13 그를 내 곁에 두어,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대 대신에 나를 시종들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14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의 선행이 강요가 아니라 자의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15 그가 잠시 그대에게서 떨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를 영원히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6 이제 그대는 그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에게 특별히 사랑받는 형제라면, 그대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나 주님 안에서 보나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여행**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4,25-33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마리아수녀의  
주일 복음 그림  
- 바오로딸쿠편트

